

전주시 혁신동주민센터 '문 활짝'

신청사 개청식 개최... 문화시설 두루 갖춰 친절하고 편리한 행정민원서비스 제공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의 행정·복지·문화 거점인 전주시 혁신동주민센터가 문을 열었다.

전주시는 11일 혁신동주민센터 신청사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지역 정치권,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유관 기관·단체 대표,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동주민센터 여는 날(개청식)' 행사를 가졌다.



전주시는 11일 혁신동주민센터 신청사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지역 정치권,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유관 기관·단체 대표,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동주민센터 여는 날(개청식)' 행사를 가졌다.

이에, 청사 건립 경과보고와 내빈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이어 제막식과 신청사 시설관람 등을 통해 혁신도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줄 신청사 개청을 함께 축하하고, 개청을 위해 힘써준 주민센터 직원과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에 앞서 시는 혁신동 주민센터 신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확보와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해 1월 공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4월 공사를 완료했다. 이후 개청 준비를 거쳐 7월부터 신청사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혁신동 주민센터가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갖추고 새롭게 운영을 시작하는 만큼 더욱 친절하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면서 "지난 5월 문을 연 전주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와 더불어 혁신동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전주의 혁신성장을 이끌 거점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원실과 복지상담실, 주민휴게실 등이 들어섰고, 혁신도시 주민들의 여가·문화생활 영위를 위한 공간인 2층부터 4층까지는 강당과 회의실, 주민자치프로그램 실 등 주민들을 위한 7개 실을 갖추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날 행사는 혁신동 주민자치프로그램 라인댄스팀과 김성진 테너(전주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에

고향사랑기부하고 공연 보고~

전주시, 'JUMF 2023' 티켓 고향사랑기부제 특별 한정 답례품 제공

전주시가 고향사랑기부금을 후원한 후원자에게 한시적으로 공연 티켓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시는 오는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주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되는 'JUMF 2023'의 공연 티켓을 전주시 고향사랑기부제 특별 한정 답례품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JUMF'는 인디부터 오버까지, ROCK에서 HIP-HOP까지 다양한 장르의 국내외 최고 아티스트들과 함께 즐기는 축제로, 매년 여름 전주에서 열리고 있다.



'JUMF 2023' 포스터

이런 특별 한정 답례품 제공은 시가 'JUMF 2023' 행사 주최사인 전주문화방송과 협조를 바탕으로 음악과 전주를 사랑하는 주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1일권 티켓을 한정 수량에 한해 특별 답례품으로 제공하기로 성사됐다.

이와 관련 시는 고향사랑기부제

후원자에게 현재 총 52종의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산물과 가공식품 25종을 구비하고 있으며, 한옥마을 체험권과 마당창극(오만방자 전라감사 길들이기), 전주에서 이뤄지는 100여 종의 전시·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착한문화티켓 등 체험·체류형 답례품도 준비하고 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평생학습관, 신흥고서 '청소년 인문 프로젝트' 진행

전주시는 지난 7일 신흥고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청소년 인문학 사업'의 일환으로 조법종 조법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역사 강연을 진행했다.

'창조와 대안의 땅 전라북도, 전주를 세계유산 도시로 만들자'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 조법종 교수는 학생들에게 전라북도가 대한 국호 발상지이며, 인근 호남평야가 전쟁 때 조선을 먹여 살린 중요한 지역임을 소개해 역사 속 전주의 중요성을 알렸다.

조 교수는 또 '역사란 무엇인지'와 '역사를 배울 때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학생들과 의견을 나누기도 하며, "역사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의 해답을 알려주며, 역사적 사실이 전하는 지혜를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다"면서 "이번 강연이 학생들에게 역사적인 통찰력을 전해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주시 평생학습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인문 교양을 육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교 교과 과목뿐만 아니라 인문학적인 지식과 가치를 습득하여 미래의 리더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중산공원에 '전주정원문화센터' 조성 완료

전주시, 교육·정보 제공·휴식·체험 등 '복합문화공간' 조성



전주정원문화센터 전경

전주시는 중화산동 중산공원의 기존 작은도서관 건물을 증축해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의 대중화를 이끌 거점시설로 만드는 '전주정원문화센터' 조성사업이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전주정원문화센터는 시민들에게 정원 관련 교육부터 정보제공, 휴식, 실습 체험 등이 이루어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아열대식물원과 정원도서관, 식물병원 및 정원소품 전시(판매)장, 강의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정원문화센터 내 아열대식물원

의 경우 시민들이 사계절 내내 푸르른 정원을 구경할 수 있도록 일대에서 흔하게 볼 수 없는 코코야자와 워싱턴야자, 부채야자 등 110종 2440주가 식재돼 있으며, 다양한 수종들과 더불어 벽천분수와 수생정원 등 색다른 경관을 연출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산림청 공모사업인 생활밀착형 정원패키지 사업에 선정돼 총 9억 원을 투입해 295㎡(수평 263㎡, 수직 32㎡) 규모의 실내정원을 조성했다.

정원문화센터에 들어서는 정원도서관은 정원 관련 서적들이 비치된 정원전문 도서관 역할을 맡게 되며, 정원소품 전시(판매)장은 정원 관련 각종 재료가나 소품을 전시(구매)할 수 있는 장소로 이용될 수 있도록 꾸며진다.

식물병원은 각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식물에서부터 화단, 베란다 정원 등 시민들의 일상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식물치료와 반려식물 관리요령 등을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정원문화센터는 개관 이후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기존에 운영한 초록정원사와 정원문화특강, 새롭게 어린이 대상으로 꼬마정원사교육(가칭), 실내의 정원실습교육 등 다양한 정원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정원문화센터가 들어선 중산공원에 총 20억 원을 투입해 정원형 도시공원으로 조성했으며, 지난 7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정원작가와 전주시민, 초록정원사들이 함께 하는 참여형 정원도 조성했다.

최현정 전주시 자원순환본부장은 "전주정원문화센터가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다양한 교류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해 전주시가 정원문화 선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는 지난 6월 한 달간 전주시민 800여 명을 대상으로 1회용품 줄이기의 필요성과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 등을 소개하는 찾아가는 시민교육과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은 '회용품 줄이기' 환경교육 현장.

전주시, '1회용품 줄이기' 환경교육 대중화

전주시가 '1회용품 줄이기 및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 속 실천의식을 높여나가고 있다.

시는 지난 6월 한 달간 전주시민 800여 명을 대상으로 1회용품 줄이기의 필요성과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 등을 소개하는 찾아가는 시민교육과 현장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1회용품 줄이기 및 분리배출 교육'은 전주시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리도록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시는 올 연말까지 4000여 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전주시 '1회용품 줄이기

및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에는 수요조사를 거쳐 현재까지 45개 기관, 5600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와 올해 1회용품 줄이기 시민강사 9명을 양성했으며, 시민강사들은 35개 동 주민센터와 기관, 복지관, 각급 학교, 유치원 등 교육을 희망하는 수요처를 찾아가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민강사들은 시민들에게 △전주시 생활폐기물의 발생 현황 △1회용품 줄이기의 필요성 △1회용품을 줄여야 하는 이유 △일상 속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방법 등을 수요처의 눈높이에 맞춰 소개해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김욱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